

## A. 구 연

### 1. 자궁 경부의 미소 침윤성 편평 세포암종의 세포학적 소견

고재수, 하창원, 조경자, 장자준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자궁 경부의 미소 침윤성 암종은 침윤성 암종의 전구 병변으로서 상피내 암종으로부터 이를 감별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육안적으로 또는 조직 생검으로 이 병변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세포학적 검사가 가장 민감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포학적 소견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피내 암종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1991년부터 1992년 초 까지의 자궁적출을 시행받은 환자 중 최종 진단이 미소 침윤성 편평 세포암종인 70예 중 술전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한 53예를 대상으로 세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다. 그 관찰 결과는 35예에서 풍부한 양의 세포가 융합성 혹은 판상으로 배열되고 세포질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핵의 염색질은 불규칙하게 분포된 굵은 과립상이거나 분포양상을 알 수 없게 진한 양상이었다. 그 중 4예에서는 거대 핵소체를 볼 수 있었고 9예에서는 미소한 핵소체의 출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소견은 침윤성 암종의 세포학과 유사하였다. 중앙 소인은 침윤성 암종에서 보이듯이 전 슬라이드를 도포하듯이 관찰되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 괴사성 파괴물, 섬유소 및 중성구를 포함한 혈액 등이 섞여서 17예에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소견을 보인 예에서 미소 침윤 암종의 진단이 가능했고, 그 외에 세포 도말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중등도 또는 고도의 이형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날개로 도말되어 나타나거나 국소적인 판상 배열을 보였고, 6예에서는 악성 또는 이형성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음성 결과를 보인 예의 조직 소견은 침윤이 1 mm 이내에서 2 mm 까지였고 병변은 주로 내경부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표본 채취상의 오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겼다.

### 2. A Case of Primary Amelanotic Melanoma of the Vagina

질에 발생한 원발성 무색소성 흑색종

Sung Ran Hong and Hy Sook Kim

A Department of Pathology, Cheil General Hospital

Interesting aspects of the primary malignant melanoma of the vagina are a rarity, its origin and possible cytologic diagnosis, and frequent confusion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clinically and histologically, especially in amelanotic type. The melanoma is a tumor which usually does not produce exfoliation of malignant cells, although exfoliative cytology would be ideal to diagnose a melanoma.